

외국 호스피스 견학 및 심포지엄

I. 호주 호스피스 기관

지난 7월 5일부터 14일까지 본 협회 노유자 회장, 홍영선 부회장 및 한성숙 회원은 호주의 호스피스 기관들을 방문하고, Daw House Hospice에서는 호스피스 전문교육과정 교류 검토를 하였다.

시드니에 있는 갈바리 병원 호스피스는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80병상 규모로 작년 견학팀이 보고한 것과 같이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South Australia의 Adelaide에 위치한 Flinders University병원 부속기관인 Daw House Hospice는 15병상의 아담한 규모였다.

월 평균 환자 수는 600명 정도로 대부분의 환자가 가정 호스피스 시스템과 연결되어 가정에서 증상조절을 받고 있으며, 급한 증상이 있거나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때는 이곳 호스피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특히 사별가족 모임, Day Care Hospice 및 Complementary Therapy 등이 인상적이었다.

또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이 운영하는 Mary Potter Hospice는 16병상 규모로 최신식 시설을 갖추었으며 조용하고 깨끗한 분위기에 실내 성당이 아름답고 현관 입구에 붙여진 표어 "We care the all" 과 그림은 이 호스피스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갈바리 병원 호스피스 책임자들과 함께

이곳 역시 입원환자와 가정간호를 겸하여 연계성 있게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II. International Hospice Institute 연례 심포지엄

제12회 International Hospice Institute 연례 심포지엄 및 제1회 International College of Hospice/Palliative Care가 1996년 7월 17일 부터 21일 사이에 미국 미시간주 Ann Arbor시에서 개최 되었다.

첫 날에는 Preconferences Session으로 Hospice/Palliative Care에 대한 미니 세미나와 입원하는 Hospice/Palliative Care의 개발방법, 소아 호스피스 등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었고 둘째날인 7월 18일 부터 마지막 날인 7월 21일 오전까지 Hospice/Palliative Care 의 각 분야에 대한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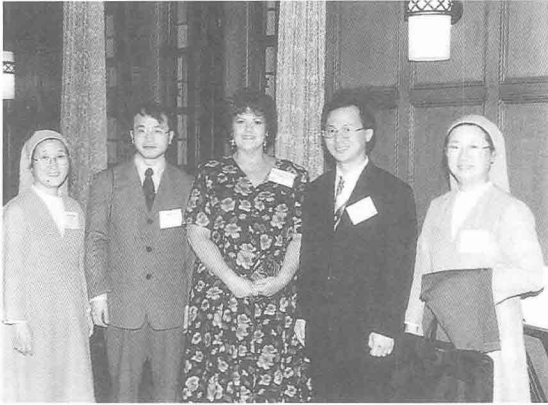
특히 매일 각 주제에 대한 소개나 Video 상영후 10여명씩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자유스럽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있어 언어가 약간 부자연스럽긴 하였지만 솔직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학회중 안락사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졌는데 Hospice/Palliative Care가 발전하지 못한 서유럽 국가들에서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Hospice가 발전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같은 문제에 부딪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였다.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회원이 참석한 우리나라는 노유자 회장, 홍영선 부회장, 김혜자 총무, 윤영호 회원등 네명이 참석하여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가 하였고, 특히 Poster Session에 두가지 초록을 제출하고 Poster Presentation을 한것과 또 중간에 있었던 연회 시간에 한국 고유의 탈춤을 홍영선 부회장이 직접 보여준 것은 많은 외국 참가자들에

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어, 한국 호스피스의 저력을 보여 주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ICHPC(International College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의 창립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임시 이사국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한국 호스피스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Ann Arbor 심포지엄에서 ICHPC의 이사장과 함께

III. 미국 호스피스 기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15일간 노유자 회장과 김혜자 총무는 미국 호스피스기관과 호스피스 협회(NHO:National Hospice Organization)을 방문하였다.

Verginia주 Alington에 있는 NHO의 회장과 부회장을 만나서 협회의 운영목적과 여러 정보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1978년 창립된 NHO는 비영리 단체로서 2,200개의 호스피스 프로그램과 3,800명의 회원들을 전세계에 가지고 있다. 단 이 협회는 개인자격으로서의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국제기관의 가입은 안된다고 하였다.

Ohio의 Cleveland에 위치한 Western Reserve Hospice에는 하루 400명정도의 환자를 돌보는 4개의 Agency와 40병상의 독립호스피스가 있다.

그 중 시내에 위치한 한 Agency를 방문하여

팀모임에 참석하고 가정방문도 하였다.

팀모임에는 의사 1명, 간호사 6명, 영성담당자 1명, 사회사업가 1명, 간호 보조사 6명, 조정자 1명으로 총 16명이 참석하여 환자 개개인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진지하게 나누는등 환자의 사정과 존엄성 유지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간호사 Sandra와 함께 64세의 후두암 환자, 임종직전에 있는 82세의 신장암환자, 70세의 결장루환자를 방문하였다.

또한 Sandy수녀와는 47세의 AIDS 말기환자를 방문하였는데 그들의 능숙한 간호기술과 교육, 그리고 성심껏 돌봐주는 모습에서 호스피스 간호사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었다.

Washington D.C.의 Washington Hospice는 1978년에 설립되어 1991년에 Home Health Service로 확장되었다.

9병상의 호스피스 병동과 108병상의 Nursing Home으로 구성된 이 기관은 최신식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장기노인 환자와 치매환자를 잘 돌보고 있었다.

또한 자비회 수녀들이 운영하는 350병상의 Province Hospital에 있는 산재형Hospice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슷하였다.

Maryland의 Montgomery Hospice는 Home Care Society라는 이름으로 큰 건물의 한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러 part로 구성되어 있었다.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를 통한 사무 자동화와 홍보 대전략부를 두어 호스피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모습도 이채로웠다.

LA의 Bakersfield에 위치하고 있는 Kern Hospice Agency는 1979년에 설립되어 미국의 다른 가정 호스피스처럼 지역사회에서 큰 몫을 하고 있었으며 각 분야별 요원들이 10여명으로 팀을 이루어 진지하게 환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Michigan에 있는 Angela Hospice는 1985년에 Hospice Home Care로 시작되어 1991년에는 Hospice Care Center가 되었다.

16병상으로 된 독립 호스피스인데 보호자들

의 편리시설까지 갖춘 최신식 건물에다 기능적, 미적으로도 뛰어난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미국의 여러 호스피스 기관들을 방문하여 그 현황과 실태에 접하면서 느낀 점은 독립 호스피스와 가정 호스피스의 연계성, 최신식으로 마련된 편리한 시설들, 그리고 팀구성원간의 긴밀한 협조작업등이 참으로 본받을만 했으며, 이런 모습들은 역시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미국인의 Humanity가 바탕이 된 호스피스 철학에서 우리나라오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호스피스 운동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미국의 호스피스 기관들처럼 진정한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NHO의 회장(우), 부회장(좌)과 함께

IV. 홍콩 호스피스 기관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주최로 제4차 호스피스 견학을 11월 2일에서 9일까지 8일간 홍콩으로 16명의 회원들이 다녀왔다.

앞으로 우리나라 호스피스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워야 할 점들이 많았다.

환자중심으로 이들의 인간성 회복과 삶의 질을 극대화 하도록 지지하고 돌보는 이상적이고 총체적인 Care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

고 직접 견학을 통해서 어려운 일, 막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과 Hospice Care는 Nursing Care의 꽃이며 기본이고 우리가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많은 영역의 Care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홍콩에서의 Hospital 견학 및 교육 프로그램은 Buddhist Hospital, Haven of Hope Hospital, Nam-long Hospital과 독립된 Hospice Center인 Bradbury Hospice에서 집중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병원마다의 특성에 맞추어 개요 및 Hospice의 범위와 기타정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연수에 참석한 회원들

1. Hong Kong Buddhist Hospital

불교신자들의 기부금으로 1970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종합병원 형태의 165침상이 있으며 홍콩의 정부법에 따라 정부의원국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이 병원은 1993년부터 호스피스 병동을 분리하여 13침상으로 병동의 Care를 하고 있다.

• 치료 Team

- 1) 의사
- 2) 간호사
- 3)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4) 사회사업가
- 5) 심리치료사

• **Nursing Care의 범위**

Hospice전문 간호사는 10주의 특별교육(4주 강의, 6주실습)을 통해 Specialist가 되며 Home Care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1) Pain Control

2) Recreation : 매월 1회 생일잔치 및 가족 친지와 파티, 외식 및 마작 등의 놀이

3) 영적 Care : 기도실에 모여 기도를 드리며 화재위험 때문에 초를 사용하지 못하고 촛불대용으로 만든 등을 사용한다.

4) Home Care : 장기치료환자로 입원 후 통증조절이 가능하면 가족과 의논하고 때로는 간호사가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시켜 퇴원을 하게 한다.

퇴원 후 간호사가 방문하여 어려운 문제를 전문 Team과 의논해 해결하고 약으로 조절이 안되면 Hospice Clinic으로 가게 된다.

5) Bereavement Care : 임종 후 2주안에 가족에게 카드발송(2주동안 정리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기 때문)하며 방문은 하지 않는다.

• **기 타**

1) 불교사상에 입각하여 내세를 입고 극락에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특이한 것은 "임종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임종 후 8시간 동안은 임종실에 따로 모셔둔다.

2) 불교신자들은 임종 후 8시간이 지나야 죽은 것으로 믿기에 임종실에서 염불을 외고 불경을 들려주는 예식을 함께 모여 하고 있으며 사후 처치후 영안실로 옮기게 된다.

2. Nam-Long Hospital

Anti-Cancer Society로 1966년에 Cancer환자를 위해 설립되어 호스피스병동 60Bed와 암병동 120Bed로 구성되어 있다.

Home Care Service는 1994년 11월에 시작되었으며 Home Care Nurse, Ward Nurse, Specialist가 모여 주1회 Conference를 통해 Care하고 있다.

종교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환자나 가족의 편

의와 안정을 위해 임종하고 난후 환자를 모셔두는 병실이 영안실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망후에 병실에서 내려와 그 방안에 일정시간 모셔두고 그 곳에서 종교적 예식을 행한다.

• **치료 Team**

Home Care Nurse, Ward Nurse, Specialist

• **Nursing Care의 범위**

호스피스에 대한 일반적 Care는 동일하며, 환자 자신이 꾸준히 직접 가꿀수 있는 정원이 따로 병원주위에 마련되어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 병원은 Volunteer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110명의 Volunteer들이 1년에 60시간이상씩 봉사하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1년에 1~2회 하는데 40~100명이 지원하고 있다.

• **기 타**

AIDS Care Center는 Donation한 건물로 시내와는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공간에 2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1997년 12월 25일 Open 예정이며 17명의 입원환자와 10명의 Day Care 환자를 받을 예정이며 현재 Home Care를 받고있는 환자가 21명이다.

Single Room으로 공동생활의 어려움을 보완했으며 넓은 공간과 자연을 통해 심리적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게 하였다.

Staff Training은 1~2개월간 영국에서 받고 있고 현재 2명의 간호사가 교육을 받고 있다.

3. Haven of Hope Hospital

병원협회 산하로 정부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정부병원으로 다른 Hospital과 마찬가지로 홍콩달러 60불(6,600원)이면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Hospice병동은 192 Bed이며 Home Care를 받기 위해 매년 300명 이상이 입원하고 있고 입원하려면 4~5일을 기다려야 한다.

4. Bradbury Hospice

1992년에 시작된 독립된 Hospice Unit로 가장 체계적이고 이상적인 Hospice Care를 하고있는 병원이다.

처음 1980년대 수녀님 1명과 간호사 1명이 작은 Hospice Care Center를 운영, 1992년 홍콩 Hospice Care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위해 자선금으로 이 병원을 설립하였다.

현재는 26개 Bed로 홍콩법에 따라 정부의원국에 속해 지원을 받고있으며 입원은 병원에 방문한 순서에 준하지않고 환자의 Care 요구도(통증의 심도, 우울증의 심도, 자살위험도, 가정사항)를 기준으로 한다.

• 치료 Team

직원은 2명의 의사, 19명의 간호사, 1명의 작업치료사, 1명의 물리치료사와 심리치료사, Medical Socialist 2명, Volunteer 와 Volunteer Coordinator 1명, 영양사와 관리직원팀들이 신체적, 심리적요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간호사들은 환자와의 친밀한 관계유지를 위해 2~3일간 한병실에서 같은 환자를 간호하며 물리치료사가 휠체어 옮기는 법, 일어서는 법, 걷기 운동 등을 임종까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서 자긍심과 힘을 주고 있다.

• Nursing Care의 범위

- 1) Hospice In - Patient Service
- 2) Home Care Service
- 3) Out - Patient Service
- 4) Day Care Service
- 5) Bereavement Service
- 6) Education and Research

• 기 타

1) 사별간호 : 사별 1개월후부터 모임을 마련한다.

첫모임은 가능하면 환자가 입원했던 곳과 다른 장소를 택하여 함께 슬픔을 나누며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시킨다.

환자가 사망하기 전부터 가족과 관계유지를 하며 사별 1~2주후 안정되었을 때 가족에게 조의를 표하는 카드를 보낸다.

2) 자원봉사자 교육

〈교육과정 I〉

* 첫날

- Basic Care
- 전반적 정보에 대한 교육(Hospice등)
- 임종 말기 환자의 정신적, 신체적변화 과정
- 자원봉사자의 역할

* 둘째날

- 윤리와 환자에 대해
- 말기환자의 의사소통
- 환자의 감정을 나누고 반응하는 법
- 환자 옮기는 법
- 환자의 Privacy 유지

* 셋째날

- 입원 환자에 대한 Information으로
- 환경 Orientation
- 기구사용법
- 응급처치
- 기본 의학교육

〈교육과정 II〉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시행하며 이미 받은 교육내용을 직접적 자율적으로 활용하며 봉사자 자신을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영성적 교육을 실시한다.



Bradbury Hospice의 간호사실